

Seven signs – Sermon 4: Sermon Notes

Title: “Miracle at the pool”

Scripture: John 5:1-15

Date preached: July 3rd 2022

Scripture: John 5:1-15

1 After this there was a feast of the Jews, and Jesus went up to Jerusalem. **2** Now there is in Jerusalem by the Sheep Gate a pool, which is called in Hebrew, Bethesda, having five porches. **3** In these lay a great multitude of sick people, blind, lame, paralyzed, waiting for the moving of the water. **4** For an angel went down at a certain time into the pool and stirred up the water; then whoever stepped in first, after the stirring of the water, was made well of whatever disease he had. **5** Now a certain man was there who had an infirmity thirty-eight years. **6** When Jesus saw him lying there, and knew that he already had been *in that condition* a long time, He said to him, “Do you want to be made well?”

7 The sick man answered Him, “Sir, I have no man to put me into the pool when the water is stirred up; but while I am coming, another steps down before me.”

8 Jesus said to him, “Rise, take up your bed and walk.” **9** And immediately the man was made well, took up his bed, and walked.

And that day was the Sabbath. **10** The Jews therefore said to him who was cured, “It is the Sabbath; it is not lawful for you to carry your bed.”

11 He answered them, “He who made me well said to me, ‘Take up your bed and walk.’”

12 Then they asked him, “Who is the Man who said to you, ‘Take up your bed and walk’?”

13 But the one who was healed did not know who it was, for Jesus had withdrawn, a multitude being in *that* place. **14** Afterward Jesus found him in the temple, and said to him, “See, you have been made well. Sin no more, lest a worse thing come upon you.”

15 The man departed and told the Jews that it was Jesus who had made him well.

1 그 후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2** 예루살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고 그 둘레에는 행각 다섯 채가 서 있었다. **3** 이 행각에는 많은 환자, 소경, 절뚝발이, 손발이 마비된 사람들이 즐비하게 누워 (물이 움직이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4** 그 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곤 하는데 물을 휘저어 놓은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다 나았다.)

5 그런데 거기에 38년 동안 앓고 있는 환자가 있었다. **6** 예수님은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자 병이 벌써 오래 된 줄 아시고 그에게 “네가 낫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7** 그러자 그 환자는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8**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하시자.

9 그는 곧 병이 나아 자리를 거둬 들고 걸어갔다. 그런데 그 날은 안식일이였다. **10**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당신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지요” 하였다. **11** 그가 “나를 고쳐 주신 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던데요” 하자. **12** “도대체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요?” 하고 그들이 물었다. **13**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를 고쳐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 곳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도 이미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었다.

14 그 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제는 병이 깨끗이 나았으니 더 무서운 병

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15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낫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자.

Review

Last time we looked at Jesus' second miracle. It was of course the long distance healing of the nobleman's son. Let us briefly now review some of the key elements from our study last time.

This miracle occurred during the first phase of Jesus' earthly ministry. We know that after the wedding in Cana Jesus returned to Capernaum for a few days. From here he went up to Jerusalem for the passover celebrations. During this visit he drove the money exchangers from the temple and had a night-time meeting with the Pharisee Nicodemus. He then left Jerusalem and spent some time in the Judean countryside. It was here that he met the Samaritan woman at the well. From here he returned to the Galilee region where He is well received as a miracle worker. He decides to return to Cana and it is here that the nobleman comes to find Him.

The nobleman was a royal official. A man who served a king in some capacity. We are not told which king he served but given that this was Galilee the most likely candidate is Herod Antipas. Actually, he never held the title of king but he was thought of by the people as being a king. Herod Antipas officially ruled Galilee and Perea as a client state of the Roman Empire. He had his headquarters in the city of Tiberias on the shores of the Sea of Galilee.

The nobleman is seeking out Jesus who has earned the reputation as a healer of the sick. We do not know if the man believes any more about Jesus than this. The nobleman wants Jesus to come with him to his house in Capernaum because his son is dying. Jesus is his last hope.

When he meets Jesus he implores Jesus to come with him. He truly believes that Jesus has the power to heal his son. However there seems to be limits to his faith. He thinks that Jesus has to be there in person for the healing. He also seems to believe that Jesus would be unable to act if the boy dies. This explains his haste in trying to persuade Jesus to come. Jesus has no need to go. His divine powers are not limited by space. He instead gives the nobleman a promise. The promise is that he can return home because his son lives. The nobleman accepts Jesus at His word and sets off home. On the way he meets some of his servants. They had been sent to give him the amazing news that his son is well. The nobleman asks when this recovery occurred.

He discovers that it was at the exact same time that Jesus had told him that his son would live. The nobleman's faith was confirmed, and he and all his household believed that the Lord Jesus Christ was indeed the messiah. The one sent by God to save.

Today we turn our attention to the third sign John presents us. The healing of the lame man.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을 보았습니다. 물론 귀족의 아들의 원거리 치유였다. 이제 지난 시간 연구의 핵심 요소 중 일부를 간단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첫 단계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후에 예수께서 며칠 동안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서 그는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 방문 동안 그는 성전에서 환전상을 몰아내고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밤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지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기적의 일꾼으로 환영받는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갔다. 그는 가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귀족이 그를 찾으러 온다. 귀족은 왕실 관리였습니다. 어느 정도 왕을 섬기는 남자. 우리는 그가 어떤 왕을 섬겼는지

말하지 않지만 이것이 갈릴리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장 유력한 후보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사실 그는 왕의 칭호를 가진 적이 없었지만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공식적으로 갈릴리와 페레아를 로마 제국의 클라이언트 국가로 통치했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 기슭에 있는 티베리아스라는 도시에 본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귀인은 병자를 고치는 자로 명성을 얻으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것보다 더 예수님을 믿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귀족은 그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집에 함께 오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함께 가자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진정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치유를 위해 직접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또한 그 소년이 죽으면 예수님이 행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오시도록 설득하려는 그의 서두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신성한 능력은 공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대신 귀족에게 약속을 줍니다. 약속은 아들이 살아 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귀족은 예수님의 말씀에 영접하고 집으로 출발합니다. 도중에 그는 그의 하인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아들이 건강하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귀족은 이 회복이 언제 일어났는지 묻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 아들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귀족의 믿음이 확고해졌고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오늘 우리는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한 세 번째 표적에 주의를 돌립니다. 절름발이의 치유.

1 After this there was a feast of the Jews, and Jesus went up to Jerusalem.

Signs one and two took place in Cana. The setting for sign three will be Jerusalem. John tell us that Jesus travelled up to Jerusalem. To us today this may seem like an odd way to describe things. Surely Jesus went down from Galilee in the north to Jerusalem further south. The “up” here though refers to geography. Jerusalem was at a higher elevation than Galilee.

There has been much debate over the years on the exact feast that Jesus attended. Under Mosaic Law Jewish men were expected to travel to Jerusalem in order to participate in three annual feasts. The three that attendance was required were Passover, Pentecost and Tabernacles. John does not state here which feast it was. On other occasions when he does name the feast it is because Jesus' teaching or action is relevant to the particular feast. Here we do not know with any certainty. Our assumption is then that what Jesus is about to do is not relevant to the particular feast. Let us move on to the setting for sign number three.

1 과 2 의 표적이 가나에서 일어났다. 세 번째 표적의 배경은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은 사물을 설명하는 이상한 방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예수께서는 북쪽의 갈릴리에서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여기서 "위"는 지리를 나타냅니다. 예루살렘은 갈릴리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다. 예수께서 참석하신 정확한 축일에 대해 수년 동안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모세 율법 아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세 번의 연례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출석이 요구된 세 가지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었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그것이 어느 절기였는지 말하지 않는다. 다른 경우에 그가 축일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예수의 가르침이나 행동이 특정한 축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예수께서 하려고 하는 일이 특정한 절기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호 번호 3 에 대한 설정으로 이동하겠습니다.

2 Now there is in Jerusalem by the Sheep Gate a pool, which is called in Hebrew, Bethesda, having five porches.

The setting for this sign was a pool named Bethesda. There are a variety of different spellings of this pool's name in various manuscripts. So you may see it referred to as *Bethzatha*, *Belzetha* or *Bethsaida*. Today most scholars go with Bethesda. As to the name's meaning there are again a number of interpretations. We know that "*Beth*" in Hebrew means house. So it might mean "house of mercy," "house of grace," or the most logical; "house of two outpourings." I say most logical because archaeological research along with other historical records show that this area in ancient times had two adjacent pools. John also points out that the pool had five porches or porticos. This referred to a covered corridor or passageway running along the sides of the pools.

As you can see in the model reconstruction shown the pools had four surrounding porticoes and one that separated the two pools making five in total. As to the pools usage it may actually have served as a public swimming pool. John uses the Greek word *kolumbethra* which often referred to a swimming pool. However the pool also had another important function as we shall see in the next two verses.

이 표지판의 배경은 베테스다라는 연못이었습니다. 다양한 필사본에는 이 풀 이름의 다양한 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Bethzatha*, *Belzetha* 또는 벳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베테스다와 함께합니다. 이름의 의미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어로 "베트"가 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그것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또는 가장 논리적인 의미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집." 다른 역사 기록과 함께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고대에 이 지역에는 두 개의 인접한 웅덩이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가장 논리적이라고 말합니다. John은 또한 수영장에 5개의 현관 또는 현관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수영장의 측면을 따라 이어지는 지붕이 있는 복도 또는 통로를 나타냅니다. 모델 재구성에서 볼 수 있듯이 수영장에는 4개의 주변 현관이 있고 2개의 수영장을 분리하여 총 5개를 만드는 1개가 있습니다. 수영장 사용에 관해서는 실제로 공공 수영장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John은 종종 수영장을 가리키는 그리스어 *kolumbethra*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못은 우리가 다음 두 구절에서 보게 될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 In these lay a great multitude of sick people, blind, lame, paralyzed, waiting for the moving of the water. 4 For an angel went down at a certain time into the pool and stirred up the water; then whoever stepped in first, after the stirring of the water, was made well of whatever disease he had.

In these verses John tells us about the other important function the pool served. It had a reputation as being a pool that could heal sick or disabled people.

It was therefore a place where the sick and disabled would congregate in the hopes that they might be cured. We have some historic records that say that the pool water was slightly reddish. This may mean it contained some medicinal elements. We also know that the pools were fed by underground springs which came at irregular intervals. This meant that periodically the waters would bubble up as if stirred. At such times it was believed that whoever got into the waters first would be healed. Now we might ask was this a genuine occurrence. Was God in His mercy healing people in this pool who had faith? God of course can heal through any means He chooses.

And in various places in scripture we read about some of these unusual means. People being healed by Peter's shadow, and by having contact with Paul's aprons of handkerchiefs (Acts 19) for example.

Or was this a legend or superstition that had built up over time? I'll give you my opinion, for what its worth after I read the next verse.

이 구절에서 요한은 웅덩이가 제공하는 다른 중요한 기능에 대해 알려줍니다.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웅덩이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병자와 장애인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이는 곳이었습니니다. 수영장 물이 약간 끓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의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수영장이 불규칙한 간격으로 나오는 지하 샘에 의해 공급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주기적으로 물이 휘젓는 것처럼 거품이 일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누구든지 먼저 물에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진정한 사건이었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 이 못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셨는가? 물론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는 어떤 수단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는 이러한 특이한 수단에 대해 읽습니니다. 베드로의 그림자와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를 만짐으로써 치유되는 사람들(행 19 장). 아니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인 전설이나 미신입니까? 나는 다음 구절을 읽은 후에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나의 의견을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5 Now a certain man was there who had an infirmity thirty-eight years.

We are introduced here to the lame man who is about to be healed. His exact disability is not outlined. It seems that he was paralysed or lame in some way. He had been in this condition for 38 years. Let me return to the question of the healing powers of the pool. Now we do not know whether he had been coming to the pool for all of those 38 years. But let's assume that for at least some of those years he came to the pool in the hopes of being healed. The question we must ask is this. Why would you continue to go to a place with a reputation for healing in which no one ever got well? You might go for a few weeks or even months. But would you really continue to go for many years? It seems unlikely. Today we might compare it to buying a lottery ticket. Would someone continue to buy a lottery ticket if no one ever won a prize? Of course not. So I think that God was at times providing healing through the means of this pool. Let us read on.

이제 곧 고침을 받을 절름발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의 정확한 장애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면에서 마비되거나 절름발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이 상태에 있었다. 수영장의 치유력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그 38년 동안 수영장에 오고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 적어도 몇 년 동안 그가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영장에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아무도 낫지 않는 치유의 명성이 있는 곳을 왜 계속 가겠습니까?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몇 년 동안 계속 갈 것입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복권을 사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상을 받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계속 복권을 사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이 연못을 통해 치유를 베풀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6 When Jesus saw him lying there, and knew that he already had been *in that condition* a long time, He said to him, "Do you want to be made well?"

Jesus targets the lame man and approaches him. John tells us that He knew about the length of the man's condition. Does this mean He had spoken to others about the man? This is possible, but it is more likely that Jesus is using His supernatural knowledge. His question to the lame man might seem to us a redundant one, "Do you want to be made well?" Surely all sick or unwell people want to be cured. This is not always the case. Some people remain happy to stay in their miserable conditions. For example beggars can sometimes make a good living from people's charitable donations. Sitting around waiting for money in some cases beats getting a job and working for it.

Some do not want to be healed because they have given up all hope. So perhaps Jesus was testing this man's faith. Jesus only helped those who wanted His help. Remember the first step towards wholeness is always a desire to be made whole. We recognise this in people who have addictions to drink or drugs. The first step to making a recovery is acknowledging the problem, and desiring to be free from it. Let's see how the man responds.

어떤 사람들은 모든 희망을 포기했기 때문에 치유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만 도우셨습니다. 온전함을 향한 첫 번째 단계는 항상 온전하게 되려는 열망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술이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에게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인정하고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7 The sick man answered Him, "Sir, I have no man to put me into the pool when the water is stirred up; but while I am coming, another steps down before me."

The simple and obvious answer to Jesus' question is, "Yes, I want to be well." Instead the man launches into a series of excuses for why he has not been healed.

Being lame he needs someone to physically help him into the water. The belief was that the first person into the water received the healing. Because he is too slow he misses the opportunity to be healed. Perhaps he is hoping that Jesus will volunteer to help him get into the water quickly. Jesus however has a far more powerful miracle in mind.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간단하고 분명한 대답은 "네, 저는 건강하고 싶습니다."입니다. 그 대신에 그 남자는 자신이 치유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련의 변명을 시작합니다. 절름발이인 그는 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에 들어간 첫 번째 사람이 치유를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는 치유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께서 자원하여 그가 물 속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바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훨씬 더 강력한 기적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8 Jesus said to him, "Rise, take up your bed and walk." 9 And immediately the man was made well, took up his bed, and walked. And that day was the Sabbath.

The Lord Jesus provides healing through the power of His Word. His healing was immediate and complete. The formerly lame man was able to stand, pick up his mat and walk unaided. It's worth noting here the completeness of this miracle. What happens to muscles that you do not use? They wither or get smaller and less powerful. The technical term for this is atrophy. If you've ever broken an arm or leg you know exactly what I mean. When the cast is removed the arm or leg appears smaller and the muscles weaker. It takes some time to get this body part back up to full strength. In this man's case he had not used his legs in 38 years. And yet here he was able to walk, bend and carry items. It was a miracle indeed. A sign that the long awaited Messiah had finally arrived. Surely all who saw what had happened would rejoice. Sadly, this was not the case. The reason for this was that these events took place on a Sabbath. Let's read on.

주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을 통해 치유를 베푸십니다. 그의 치유는 즉각적이고 완전했습니다. 이전에 절름발이였던 사람은 서 있을 수 있었고, 그의 매트를 들고 도움 없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기적의 완전성을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어떻게 됩니까? 시들거나 작아지고 힘이 약해집니다. 이에 대한 전문 용어는 위축입니다. 팔이나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다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것입니다. 깁스를 제거하면 팔이나 다리가 작아 보이고 근육이 약해집니다. 이 신체 부위를 완전한 힘으로 되돌리려면 시

간이 걸립니다. 이 남자의 경우 그는 38 년 동안 다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는 걷고, 구부리고, 물건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는 징조. 일어난 일을 본 모든 사람은 분명히 기뻐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들이 안식일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10 The Jews therefore said to him who was cured, “It is the Sabbath; it is not lawful for you to carry your bed.”

I worked for many years as a lifeguard at a swimming pool. The pool was a popular attraction especially in the summer and would often get very crowded. Lifeguards have two main responsibilities. The first naturally is to be ready to rescue or save people from drowning. The second is to maintain good order within the pool. To make the pool a safe place. Lifeguards are given guidelines on what is, or isn't permissible within the pool. However as with many guidelines their interpretations can be loosely or rigidly applied. My approach was to be fairly loose. I wanted people to have fun and enjoy themselves. Therefore I tried not to blow my whistle and caution people very often. However other lifeguards were not so loose. Some would be almost constantly blowing their whistles and warning people.

I give this example because the Jewish authorities were the second kind of lifeguard. Incredibly authoritarian. They believed that the rules must be absolutely and rigidly kept. As Christians, we accept that God's rules and commands are to be obeyed. However the issue with the Jewish authorities is that they had gone way beyond God's commands. They had added a whole extra layer of man made traditions to the law that made it an unbearable burden upon people. The Sabbath laws are a good example of this. The scribes had compiled a list of 39 things that could not be done on a Sabbath. Amongst the things prohibited were, carrying something from one place to another, writing two or more letters (one was presumably okay), baking, sowing stitches and extinguishing a fire. In case you were wondering whether these rules were taken seriously let me assure you they were.

I have an contemporary example. In 1992 in an orthodox area of Israel a fire broke out in an apartment complex. The people living there were unsure regarding whether making a phone call to the fire department broke Sabbath laws. They hurried to speak with a rabbi on the matter. By the time the rabbi had thought about it and considered it okay two more apartment blocks had caught fire.

So in the eyes of the Jewish authorities two laws had been broken. The man had carried his bed and Jesus had healed the man on a Sabbath. Let us read on.

나는 수영장에서 인명 구조원으로 여러 해 동안 일했습니다. 수영장은 특히 여름에 인기 있는 명소였으며 종종 매우 붐볐습니다. 인명 구조원은 두 가지 주요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스럽게 익사하는 사람들을 구출하거나 구출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풀 내에서 좋은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수영장을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인명 구조원은 수영장 내에서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지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침과 마찬가지로 그 해석은 느슨하거나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 접근 방식은 상당히 느슨했습니다. 사람들이 재미있고 즐겁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호루라기를 불지 않으려고 자주 사람들에게 주의의를 기울였다. 그러나 다른 구조원들은 그렇게 느슨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의 끊임없이 호루라기를 불고 사람들에게 경고할 것입니다. 나는 유대 당국이 두 번째 종류의 인명 구조원이기 때문에 이 예를 든다. 엄청나게 권위적입니다. 그들은 규칙이 절대적으로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규칙과 명령에 순종해야 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유

대 당국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훨씬 뛰어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만든 전통을 법에 추가하여 사람들에게 견딜 수 없는 부담을 주었습니다. 안식일 법은 이에 대한 좋은 예입니다.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 39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금지된 것 중에는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두 개 이상의 편지를 쓰는 것 (하나는 팬찮았을 것입니다), 굽기, 바늘 뿌리기, 불 끄기 등이 있습니다. 이 규칙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는지 궁금하시다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의 예가 있습니다. 1992년 이스라엘 정교회 지역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소방서에 전화를 거는 것이 안식일 법을 어긴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문제에 대해 랍비와 서둘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랍비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팬찮다고 생각했을 때 두 개의 아파트 블록에 더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당국의 눈에는 두 가지 법이 어겼습니다. 그 사람은 침상을 메고 있었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11 He answered them, “He who made me well said to me, ‘Take up your bed and walk.’”
12 Then they asked him, “Who is the Man who said to you, ‘Take up your bed and walk’?”

The healed man is trying here to pass the blame for breaking the Sabbath laws onto Jesus. Effectively he's saying that Jesus made Him do it. It's the kind of thing we say when we are children. It's not my fault someone else told me to do it.

It's not an approach we should employ as we mature. It's certainly not a very good defence in a court of law. As a grown adult man he had the ability and freedom to resist what he was told to do. Also, and more importantly in this situation it does not show great gratitude to Jesus who had healed him after 38 years of hardship. But in defence of the man we should say that he was probably in fear of the authorities. It was a serious offence to break the Sabbath laws. The man might be excommunicated or even put to death.

The Jewish authorities are very keen to locate the man who told him to take up his bed. They wanted to discover who this man was who would brazenly contradict their laws. What a trouble maker He is. Not only healing someone on a Sabbath, but then telling them to pick up their mat. It seems amazing does it not that their interest lies in petty, man-made laws but not in the reality of a paralysed man being instantly healed. Let us see what happens next.

고침을 받은 사람은 여기에서 안식일 법을 어긴 책임을 예수님께 전가하려고 합니다. 사실 상 그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라고 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면 채택해야 하는 접근 방식이 아닙니다. 확실히 법정에서 아주 좋은 변호는 아닙니다. 성숙한 성인으로서 그는 지시받은 일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38년 동안의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께 큰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 우리는 그가 아마도 당국을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안식일 법을 어기는 것은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그 사람은 파문당하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 당국은 그에게 침상을 들고 오라고 한 남자를 찾기 위해 매우 열심입니다. 그들은 뻔뻔하게 그들의 법을 어기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고 싶어합니다. 그는 얼마나 말쑥꾸러기인가. 안식일에 누군가를 고칠 뿐만 아니라, 자리를 들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이 사람이 만든 하찮은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가 즉시 치유되는 현실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13 But the one who was healed did not know who it was, for Jesus had withdrawn, a multitude being in *that* place.

The Jewish authorities want to know the identity of Jesus. Unfortunately for them the formerly lame man does not know who Jesus was. Jesus it seems had left the area. This was probably because He wanted to avoid a confrontation with the authorities at this stage of His ministry.

The fact that the man was healed without knowing Jesus' identity is interesting. This demonstrates that it was not the man's faith in Jesus that had made him well. Instead it was God's act of amazing grace. God gifted this undeserving man the gift of instant healing. What a wonderful thing that is to think about. How God extends His grace to miserable, undeserving wretches like you and me. God's free gift of salvation is freely given to those who confess, repent and put their faith in the Lord Jesus Christ. Let us see how this episode concludes.

유대 당국은 예수의 정체를 알고 싶어합니다. 불행하게도 이전에 저는 다리 저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지역을 떠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가 사역의 이 단계에서 당국과의 대결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모르고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그를 낮게 한 것은 예수에 대한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것은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즉각적인 치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멋진 일인가.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처럼 비참하고 자격이 없는 가련한 사람들에게 그의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봅시다.

14 Afterward Jesus found him in the temple, and said to him, "See, you have been made well. Sin no more, lest a worse thing come upon you." 15 The man departed and told the Jews that it was Jesus who had made him well.

Soon after Jesus finds the man in the temple which was close to the Bethesda pools. Evidently Jesus had been looking for the man to give him a warning. The warning is that he should stop sinning in case something even worse than being lame befalls him. The implication here is that the man's physical condition came about as a result of his sin. I want to make it clear that physical ailments are not always a result of sin. As human beings our suffering and sicknesses are not always the inevitable result of our sins. Jesus Himself tells us this is the case;

얼마 후 예수님은 베데스다 못에서 가까운 성전에서 그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는 경고를 줄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절름발이보다 더 나쁜 일이 그에게 닥치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그 사람의 육체적 상태가 그의 죄의 결과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나는 육체적인 영양이 항상 죄의 결과는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의 고통과 질병은 항상 우리의 죄의 불가피한 결과는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것이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 Now as Jesus passed by, He saw a man who was blind from birth. 2 And His disciples asked Him, saying, "Rabbi, who sinned, this man or his parents, that he was born blind?" 3 Jesus answered, "Neither this man nor his parents sinned, but that the works of God should be revealed in him. (John 9:1-3)

However Jesus also does not say that physical ailments are never caused by sin. Sometimes we do suffer as a consequence of our sins. So Jesus is giving this man a warning. Don't let the fact that you are now healed lead you into further sin. We must always remember that the ultimate consequences of sin and a lack of repentance are truly horrific.

It is bad to live a life on earth with a physical disability. But it is much worse to spend eternity in hell because we have not turned to Christ and accepted His gift of salvation.

The episode ends with the man telling the authorities that it was Jesus who healed him. This was not because the man wanted Jesus to receive the glory. Rather it was because he feared for his own safety. His thinking was as follows. If they had the real lawbreaker; Jesus, then the authorities might overlook his more minor offence. What a sad conclusion to the story. How ungrateful and hard hearted this man was.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적 질병이 결코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죄의 결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경고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이 당신을 더 큰 죄로 이끌도록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의 궁극적인 결과와 회개의 결여가 참으로 끔찍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육체적 장애를 가지고 지상에서 삶을 사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는 것은 훨씬 더 나쁘다. 에피소드는 그 남자가 당국에 자신을 고친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안전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의 생각은 이랬다. 그들이 진짜 범법자가 있다면; 예수, 그러면 당국은 그의 더 가벼운 범죄를 간과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슬픈 결론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마음이 완고했는지.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hree comments to make from today's study.

1 Waiting too long

The man in today's story had been paralysed for 38 years. That's a long time to live in discomfort and pain. Fortunately for him God had mercy upon him and healed him. We do not know why Jesus picked him out for special treatment. We also do not know why God chooses to heal some and not others. We can all think of examples of solid, devoted Christians who have prayed for healing and not received it. We can all think of Christians who we would say suffered and died too soon. All I can say with certainty is God always knows and does what is best. But sometimes I think we are guilty of keeping things private or suffering quietly and alone. It's as if we don't want to trouble or burden God or each other with our requests. So I urge you today to not wait too long. If you or people you know need healing then let us know so that we can petition the Lord with prayer. God remember delights in blessing His children.

오늘 이야기의 남자는 38년 동안 마비되었습니다. 불편함과 고통을 견뎌야 하는 오랜 시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그를 특별한 대우를 위해 선택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은 고치고 다른 사람은 고치지 않기로 선택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치유를 위해 기도했지만 받지 못한 확고하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예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 일찍 고통을 받고 죽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알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나는 우리가 일을 비밀로 하거나 조용히 혼자 괴로워하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의 요청으로 하나님이나 서로를 괴롭히거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당신이나 당신이 아는 사람들이 치유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쁨을 기억하십니다.

2 Hard hearted and ungrateful

The man in today's story was ungrateful and hard-hearted. Jesus had blessed him in the most unimaginable way. He can hardly have expected on that day that he would instantly and permanently be healed. But his response was poor. He did not defend the Lord and was ungrateful. I wonder though if the same charges might be levelled against us. How often do we take God's blessings for granted? How often are we ungrateful? God has given us so much. How often do we take the time to thank Him for His goodness? Not enough. How often are we hard-hearted towards others? So let it not be said of us that we are hard-hearted and ungrateful towards God.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남자는 배은망덕하고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가 즉시 그리고 영구적으로 치유될 날을 거의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그는 여호와를 변호하지 않았고 배은망덕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하게 여깁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시간을 내어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 감사하는가? 부족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완악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는 말을 하지 맙시다.

3 Be serious about sin

Jesus sought out the man He had healed to give him a warning. The warning put simply was this. Be serious about sin. It's a warning we all should take to heart. If we are truly in Christ we know that our sin cannot cause us to lose our salvation. But sin always has consequences. It can lead us to suffer here on earth and lose eternal rewards in eternity. So I caution you to be serious about sin. Regularly confess where you have fallen short and ask for God's help in resisting the temptation to sin.

예수님은 그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자신이 고침을 받은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경고는 단순히 이것이었습니다. 죄에 대해 진지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경고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구원을 잃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죄에는 항상 결과가 따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지상에서 고통을 받고 영원한 상급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라고 경고합니다.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정기적으로 고백하고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